



30일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치러진 2011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덴마크 카르스텐 모겐센-마티아스 보에에 승리한 한국 이용대-정재성이 경기 후 유니폼을 관중에게 선물하고 환호 있다. /연합뉴스

국민 남동생 이용대 女心잡다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정재성과 짝 이뤄 2연패
‘살인 링크’ 이어 ‘복근’ 세리머니...팬 성원 보답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전기)이 2011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남자 복식 2연패를 달성했다. 이용대-정재성은 30일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카르스텐 모겐센-마티아스 보에(덴마크)를 상대로 2-0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날 승리로 이용대-정재성은 지난 9일 타이베이에서 치러졌던 2010 세계배드민턴

연맹(BWF) 슈퍼시리즈 마스터스 파이널 결승전에서 모겐센-보에에게 0-2로 완패했던 아픔을 깨끗하게 설욕하고 우승 상금 9만 4800달러(약 1억53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1세트 초반 상대 범실을 틈타 내리 5점을 따낸 이용대-정재성은 2점을 내주고 나서 이용대의 강력한 후방 공격과 정재성의 네트 플레이가 빛을 발하며 8연속 득점에 성공해 승기를 잡았다. 공세를 늦추지 않은 이용대-정재성은 13-

3 상황에서 상대 범실을 묶어 4점을 잇달아 확보하는 등 일방적 우위를 점하며 21-6으로 1세트를 따냈다. 2세트도 이용대-정재성의 협력 플레이가 빛났다. 초반 공격 범실이 이어지며 5-8까지 몰렸던 이용대-정재성은 상대 공격 범실과 정재성의 네트 플레이를 앞세워 9-9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가 오른 이용대-정재성은 12-10부터 이용대의 강력한 스매시를 앞세워 내리 6점을 뽑아내 경기를 압도했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19-13 상황에서 2연속 득점으로 33분 만에 승부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스피드 코리아’ 오늘 ‘골든데이’

쇼트트랙·빙속 금 도전... 동계 아계임 열전 돌입

한국이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3위 수성을 노리며 메달 레이스에 불을 붙인다. 26개국에서 1100여명이 참가하는 동계아시안게임이 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8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쌍두마차’를 내세워 11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내건 한국은 개막 다음 날인 31일부터 무더기 금빛 사냥을 시작한다. 대표팀이 예상한 대로 금메달이 쏟아지면 이날은 대회 최고의 ‘골든 데이’가 될 전망이다. 실상 종목이 열리는 알마티에서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프리스타일 모글과 스키점프 라지힐에서 먼저 금메달 도전을 펼친다.

모글에서는 여자부 간판 서정화(미국 남가주대)와 상층부의 남자 유망주 최재우(서울스키협회)가 메달권 진입을 노릴 예정이다. 영화 ‘국가대표’로 유명한 스키점프 팀도 개인전 라지힐(K-125)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스키점프팀은 그동안 단체전에서 강했지만 이번에는 라지힐 위주로 연습해 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오후 5시에는 한국의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 남녀 1500m 결승전이 열린다. 지난 1999년 제4회 강원 대회부터 2007년 창춘 대회까지 3개 대회 연속으로 이 종목을 석권해 온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남녀 동반 4연패의 위업을 쫓겠다는 각오다.

노진규(경기고) 등 젊은 선수들이 남자 대표로 출전하고, 여자부에서는 밴쿠버 동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박승희(경성고)와 조해리(고양시청)가 나선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던 엄천호(한국체대)는 다친 발목의 상태를 살펴보고 출전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골이아 아스타나 실내스케이팅장에서는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한국체대)이 남자 5000m에 출전해 장거리 빙속 사상 첫 금빛 낭보를 전할 전망이다. 이승훈이 평소 실력만 보여주던 금메달 획득이 무난하리라는 전망이다. 전남체육회 소속의 문지희는 바이에슬론 스피드 7.5km에서 ‘깜짝 금메달’에 도전한다.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히는 문지희는 대회 직전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이범호 영입’ 보상선수 논란

한화 “신인 포함” KIA “안된다”
KBO 법률자문 거쳐 오늘 결정

이범호의 ‘깜짝영입’에 프로야구 스토브리가 뜨겁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KIA 타이거즈가 요청한 이범호와 계약의 승인을 했다. 이에 따라 KIA와 한화의 보상절차도 본격화 됐다. 한화는 KIA로부터 이범호의 2009년 연봉의 450%인 14억8500만원 또는 보상 선수 1명과 연봉 300%인 9억9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화는 후자를 선택할 전망이다. 가장 큰 논란은 신인들의 보상선수 포함 여부. 18명의 보호선수와 군 보류 선수, 당해 FA 신청선수, 용병을 제외한 등록선수가 보상선수에 포함되지만 신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통상적으로 FA 계약은 신인들이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1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 되는 것에 반해 이번에는 선수등록 마감일(1월31일)을 앞두고 진행이 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KIA는 계약 공시일을 기준으로 신인은 보상선수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화는 내달 13일까지 선수 및 군전 보상이 진행되는 만큼 신인도 보상선수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BO는 지난 28일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30일 이전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의 FA와 같은 사례로 볼 경우 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논란의 핵심 ‘신인’의 거취는 법률자문 등을 거친 뒤 31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또 다른 관심사는 누가 한화 유니폼을 입느냐다. 선발진을 포함한 주전

선수는 물론 유망주까지 18인 안에 넣어야 하는 만큼 KIA에서는 즉시전력감의 유출은 불가피하다. 마운드가 약한 한화가 투수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만 한대화 감독의 성향상 내야수를 데려갈 가능성도 높다. KIA 선수단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지훈련이 본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나온 깜짝 영입이 야수진 강화와 포지션 이동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선수단은 자신의 팀내 입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보호선수 명단을 놓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화의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보상선수를 놓고는 팀내 입지에 따라 선수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앤서니 김, 선두 미첼슨 2타차 추격

PGA 파머스 오픈 3R 5위
돌풍 강성훈 73위 곤두박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카골프)이 셋째 날 역전 우승의 희망을 이어갔다. 앤서니 김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토리 파인스 골프장 남코스(파72·7569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쓸어들었지만 더블 보기 1개,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2라운드를 2위로 마쳤던 앤서니 김은 3라운드까지 중간합계 10언더파 206타를 써내며 공동 선두 필 미첼슨과 빌 하스(이상 미국)에 2타 뒤진 5위에 올랐다. 순위는 내려

앉았으나 선두와 격차는 2타로 유지했다. 이날 앤서니 김은 전반과 후반 각각 버디를 3개씩 잡아내기는 했지만 페어웨이 적중률이 21%까지 떨어지며 고전했다. 전날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던 타이거 우즈(미국)는 2타를 잃어 공동 24위(중간합계 4언더파 212타)로 떨어졌다. 우즈는 초반 2번홀(파4)과 3번홀(파3)에서 잇따라 보기를 범하는 등 전반과 마찬가지로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 ‘골프 황제’ 명성을 되찾겠다는 야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웨지샷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공동 선두에 8타 뒤진 우즈는 “오늘은 전혀 잘하지 못했다. 온종일 몸부림쳤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한편 양용은(39)은 1타를 줄여 5언더파 211타를 적어내 공동 17위를 달렸다.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는 공동 46위(2



언더파 214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최경주(41·SK텔레콤)는 공동 56위(1언더파 215타)에 자리했다. PGA 데뷔 이후 처음으로 컷을 통과한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은 무려 6타를 잃어 하위권인 공동 73위(2오버파 218타)로 떨어졌다. 첫 날에는 공동 선두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던 강성훈은 이날 16번홀에서 퀴드러플 보기까지 기록하는 등 파3홀에서 줄곧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www.kjhr.com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전자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